

교회목표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 11 : 40)

순례자

발행인: 이 중 윤
편집인: 나 희 주
편집주간: 원 필 현
발행처: 서울 장로 교회
주 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5-18
전 화: 517-7651~5
F A X: 512-1225

93년도 교회 표어 :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93 홍해 작전

기도의 열기로 고조

'93 홍해작전이 온 성도가 참여하는 가운데 점차 뜨거운 기도의 열기를 고조되면서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주제하에 지난 주일(6일) 새벽 5시부터 시작된 홍해작전은 매일 참여하는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총 사령관인 이종운 목사는 출애굽기를 본문으로 삼아 개인과 가정, 교회, 그리고 국가적인 홍해를 가릴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의 메시지를 폭포수처럼 증거하고 있으며, 모든 성도는 서울교회 7대 기도제목을 함께 읽고 그 모든

제목들이 온전하게 성취되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새벽을 가르며 예배처소로 올라오는 성도의 모습에는 홍해를 넘고자 하는 일사 각오의 모습이 보였고, 기도회를 마친후 계단을 내려오는 성도들의 모습에는 홍해를 기쁨으로 건너고 있는 환희의 모습들로 가득차 있었다.

아직도 한 주간의 기회가 남아 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시작의 때요, 은혜의 때가 된다. 온 성도가 함께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기대한다.



제3회 목회자세미나 종강

한국교회생신연구원(원장 : 이종운 목사)이 주관했던 제3학기 목회자세미나가 지난 월요일(7일) 은혜 중에 종강했다.

목회자세미나는 지난 3월 29일(월)에 개강하여 6월 7일(월)까지 10주동안 “급변하는 사회와 교회갱신”이란 주제하에 이종운 목사를 비롯한 10분의 강사와 전국에서 참여하신 교역자들 그리고 봉사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교회 갱신과 사명감을 확

인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아쉬웠던 시간을 마감했다.

여전도회에서는 종강파티를 맞이하는 도시락으로 준비했으며, 애찬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에는 여전도회원의 특송으로 은혜와 감사가 넘쳤다.

다음 제4학기 목회자세미나 개강은 오는 9월 초에 있을 예정이며,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신약에 나타난 남·녀의 문제(3)

—우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 편집자주 : 이 글은 제16호 편사, 장로 부인세미나에서 이종운 목사님이 ‘신약에 나타난 남·녀의 문제’라는 주제로 강의한 내용으로 5회에 걸쳐서 연재한다.

고전 11장의 기도나 예언은 개인적인 것이므로 교회안에서 공적인 것을 금한것(14장)과는 충돌이 없다는 해석도 있지만 지나치게 합리적인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근거 없는 이론이라 하겠다. 그런고로 고전 14:34-35은 특별한 시대에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던 교회에 주신 경계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딤후 2:8-14은 교회안에서 여성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또 다른 성경구절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바른 해석만이 그같은 편견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9절에서 여성도는(예의를 갖춘 옷을 입고)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 사실 이 본문은 교회내에서 여성의 사역을 부인한다는 해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구절이다. 오히려 여성의 사역을 가르친 것이다. 그러면 11절에서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침묵으로) 배우라는 말씀은 무엇인가? 3:11과 5:13 그리고 이 서신의 전체적 분위기로 보아(고린도교회 처럼)교회내에서 여자들의 말로 인해 발생된 문제가 너무 많았다는 것을 쉽게 추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11절의 ‘종용하라’는 말은 집회시 말하는 것을 금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시 문화적 상황에 나타난 일반적인 생활태도를 보여준 말이다. 즉 사도는 딤후 2:2에서 보여준 말씀처럼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교회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12절에서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는 것은 남자의 권위가 여자의 것 보다는 높다거나 크다는 뜻이 아니다. 여기서 말한 ‘주관하는’ 권위는 절대권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절대적 힘을 갖고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12절은 여성들이 자신을 절대권위를 가진자 처럼 말도 행동도 해서는 안될 것을 가르친 것이다(절대권위는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홍해를 건너는 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이다.
-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귀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감사가 넘쳐나리라.

요한복음강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30-31)



이종윤 목사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함

성경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들은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분명하게 알지를 못하면 성경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설교를 수백번 들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31절)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듣고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로 믿게 하려 함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 목적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1. 성경은 구별된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책이지 하나님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책은 누구를 높이 주기 위해서 쓰여지기도 하고 또 누구를 기뻐하기 위해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를 기뻐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결코 누구를 높이기 위한 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것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는 감취지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하여 교육적 효과를 거두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지식도 높아지고 교양도 커진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 것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움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죄를 회개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책은 다른 어느책과 성격이 전혀 다른 책입니다.

2. 요한 복음의 증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1:29) 세례 요한은 이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증거합니다. 또 요한은 1장 33~34절에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재하심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1:41)하고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전도를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1:45)라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1:49)하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목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벌써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3장 16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서는 부도덕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여인으로 인해 수가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지 아니 하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앎이라”(4:42)고 말합니다. 또 4장 53절에 한 관원은 “네 아들이 살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곧 내게 증거하는 것이로라”(5:39)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8:30)

결국은 예수님께서 믿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9장 11절에서는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으로 믿음을 갖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고 이와같은 일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11:45)을 통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관리 중에서도 믿는 자가 많이 생겼으며(12:42) 결국 20장 28절에 와서는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지요”하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증거로 가득 채워진 책입니다.

3. 생명을 얻게 하려함.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게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말은 영생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생명을 얻는 비결은 A.B.C만 알면 되는데

① A는 Accept.(영접하다)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 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만에 살아났고 사십일 만에 승천하셨으며 우리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 들이는 것입니다.

② B는 Believe(믿어라)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그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죄를 씻어 주셨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③ C는 Commitment(헌신)입니다.

구주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헌신이 없이 믿는 것으로 끝내면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시고 헌신적으로 자기를 내어 놓으심으로 우리를 구원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완전히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이 없는 사람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은 사람이 못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비결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내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는 완전한 헌신이 영원토록 있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93 홍해작전이 날로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 내려진 출애굽 대명과 인간 모세의 갈등 속에서도 출애굽 대행진은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은 불가능을 뛰어넘어 당신의 일정에 따라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앞에 놓인 홍해가 많지만 특별히 이번에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예배를 위한 처소 곧 예배당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 최우선 순위를 예배 처소에 두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교회에 주신 놀라운 비전을 감당하기에 지금의 처소는 너무 협소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이다. 이미 하나님은 서울교회가 감당해야 할 엄청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전을 간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호화로운 예배당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세계 선교센터로서 해야 할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 그것을 우리가 이루자는 것이다.

뜻이 성취되면 방법은 있다. 과부의 엽전 두 렵돈을 참으로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은 최선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생각만 하여도 가슴 설레는 축복의 역사이다. 천성을 향해 순례자의 길을 가는 서울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일은 결국 이루어 질 것이다. 기도와 또 다른 은혜방법으로 참여하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학1:7-8).

홍해를 앞둔 우리의 기도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게 하소서

장 애 희 권사

어둡던 밤이 밝아온다.

아침 기상 나팔 소리가 들려온다.

좌절에서 희망으로 가는 진군의 나팔소리가 들려온다.

홍해의 어려운 도강에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은 보시리라.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오직 믿고 기도할 수 밖에 없음을 알아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한다.

넓은 터전 위에 예배당을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한다.

주여,

암담하게만 여겨지는 불신의 홍해를 가르소서.

홍해 앞에서 울지 않게 하시고 진군의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소서

가나안 복지 새땅, 새예배당에서 주님과 함께 선교사역 잘 감당케 하소서.

승전가를 부르게 하소서.

인간의 경영과 하나님의 경영

이 영 열 집사

‘홍해작전’의 의미를 부여하는 참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경영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과 현안물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 그분의 경영으로 이뤄달라는 절규요 호소요 애원이다.

인간의 경영은 가급적 그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소위 투입(Input)에서 생성(Output)의 극대화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영성과는 투자나 투입(Input)과 비례하는 전체적 경영이 아니며 항상 위험을 수반하는 불안의 경영도 아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인간의 논리적, 계량적, 경험적 경영과 이에 비례된 성과의 한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뤄주고 싶어 하시는 대로 이뤄주시는 극히 일방적이요, 절대적이요, 무한성의 경영이다. 그러기에 그분이 이뤄주시는 과정과 결과를 경영의 성과라는 말 대신 ‘기적’이나 ‘대사건’으로 표현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홍해작전’이 바로 이것이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 여건과 상황으로 홍해를 무사히 건너는 것은 인간의 경영으로는 정신 이상자로 취급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영은 홍해사건을 이뤄내셨다. 그것도 절묘하고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적으로 말이다.

서울장로교회가 지난 6월 6일(주일) 미명을 기해 '93 홍해작전의 대단원의 막을 올렸다. 그 이듬해보다 '93 작전은 새성전 건축이라는 대 홍해를 건너야 하는 엄청난 사건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새벽 미명부터 울부짖는 우리에게 홍해의 기적은 과연 나타날

것인가! 이는 전적으로 우리들 믿음의 자세에 달려있다. 아직도 인간의 경영만을 고집하고 반신반의하는 군상들이 있다면 그 기적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영만을 의지할 때 성전건축의 꿈은 실현되는 것이다.

“홍해작전”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경영을 이뤄내는 우리들의 자세는 무엇인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사명으로 출애굽하던 당시의 모세와 같은 믿음과 확신과 그리고 이를 위한 참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홍해작전의 중요성을 알자는 것이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현 여건으로는 이뤄질 수 없는 새성전의 새기적을 하나님의 경영으로 이뤄지게 하자는 것이다.

새벽기도를 통한 확신과 헌신의 다짐이 우리를 감격케 하고 있다. 과거 수 백만원짜리 옷과 귀걸이에 파묻혀 살았다는 어떤 믿음의 자매는 통회하는 회개로 새성전 건축에 ‘오병이어’의 한 몫을 하겠다고 각오가 대단하다. 모든 성도들이 홍해작전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어린 기도와 헌신이 바쳐질때 새성전 건축의 꿈은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기 저기서 새성전 건축의 실현을 보다 구체화하고 적극화하는 감격어린 외침이 홍해의 현장에서 들려오고 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우리는 더 지체할 수 없다. 의심과 회의와 부정과 불평의 ‘바로군대’가 우리를 수 없이 엄습해도 '93 홍해작전을 통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의 성전으로 가야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뤄주시는 기적의 역사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홍해작전”의 참뜻이다.



정병무 장로(박경희 권사)는 지난 6월 11일(금) 이종윤 목사님을 주례로 장남 정성균 군(신부 김미선 양)의 결혼예식을 기쁨 중에 가졌다.

순례자칼럼

가야바식 개혁은 안된다

김 용 진 집사

문민정부

출범후 우리사회에는 거센 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다. 사실 개혁의 절급함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최근 실시된 여론 조사에 의하면 각급의 개혁사업은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개혁작업이 너무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과 그 개혁방법이 성경적 문제 해결방법과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라 전체의 회개를 촉구함으로 범죄문제에 대응하였던 것과는 달리 몇몇 특정 개인을 희생제물화하여 처벌하는 일벌백계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이다.

사회전반에 부정부패가 만연한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나쁜” 여인을 놓고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의로운”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심으로 도토리 키재기 식의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 것과 일벌백계 처벌 방식의 어리석음을 교훈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의식을 느껴야 마땅하지 신문지상에 오른 불과 몇명에게만 책임이 있는 양 비난하고만 있으면 안된다.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동시에 일벌백계의 원칙도 엄밀히 보면 비성경적이다. 일벌백계란 백사람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한사람을 모델 케이스로 처벌하는 것이다. 사회전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합법적으로 희생될 수 있다는 대의 명분이 우리 사회에 잠재적으로 인명경시 사상을 부채질 했던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일벌백계의 원리에 의해 희생되었지만 특히 예수님께서 이 일벌백계의 악한 흥계를 통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준다.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높이 달음으로써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누구도 똑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을 시각적으로 외치기 위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합리화 시켰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류의 죄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시거나 몇몇 악인을 골라서 벌주시는 것이 아닌 자신의 능동적인 희생으로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셨으며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며 일벌백계의 집벌보다 용서를 통한 미래 지향적인 문제해결을 몸소 보여주셨던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개혁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일벌백계와 같은 가야바식의 수단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할 것이라 확신한다.



목회자세미나에 대한 소감

강 정 일 목사(홍제동 교회)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모두는 교파를 초월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요, 같은 주님을 섬기는 지체대임을 확인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먼저 지면을 통해서나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쉬지 않고 10주간 강의해 주신 이종운 목사님, 특강해 주신 모든 강사님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특별한 정성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서울장로교회 모든 섬김의 식구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 사랑의 빛을 갚을 길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선히 갚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와 교회갱신”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제3학기 세미나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에게 의미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말씀을 통해 한국교회의

미래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둘째, 교역자들인 우리 자신이 먼저 갱신되지 않고서는 교인들을 갱신시킬 수 없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회개를 통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이 내 자신부터 우선 되어야만이 교회갱신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강사진들의 특강 세미나가 유익했으며, 이종운 목사님의 데살로니가서 강해를 통해 목회자 바울의 목회사역이 커다란 비전과 도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쪼록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다함이 없는 발전과 서울장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등부

「제2회 청소년 찬양축제」
가져

고등부(부장 노문환 장로)는 지난 6월 12일(토) 서울교회 2층에서 “제2회 청소년 찬양 축제”를 가졌다.

홍해작전 기간에 실시된 이 찬양축제는 약동하는 젊음과 정열을 한마음으로 묶어 우리의 구주요,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것이었다.

찬양 축제는 총3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1부에서는 고등부의 「엘로이 싱어로 팀」의 찬양, 원필현 목사의 메시지, 그리고 새 친구 소개 및 고등부 소개가 있었으며, 2부에서는 박종윤 전도사의 찬양, 그리고 3부에서는 참석자 모두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자는 뜨거운 헌신의 기도가 있었다.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홍해작전이 은혜가운데 진행되게 하소서
2. 7대 기도제목이 개인, 가정, 교회,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3. 목회자세미나에 참석했던 목회자들이 갱신되게 하소서.

예배안내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오전 9:00
	II 오전 11:00
	III 오후 2:00
찬양 예배	오후 5:00
수요 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12: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교회약도

